'5·18 명예훼손' 전두환 오늘 재판

2년 만에 마무리 수순…헬기사격 여부 최대 쟁점

전씨 측 증인심문…조만간 구형·1심 선고 결론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89)의 재판이 21일 열린다.

특히 2년 넘게 진행된 이번 재판은 10월 중 증인신문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조만간 검찰의 구형과 1심 선고 결과도 나올 전망이다.

20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씨의 속행 공판은 2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전씨 측이 신청한 4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전씨 측 변호인은 이들을 상대로 5·18 민주화운동 기간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신문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5·18 특조위원을 지낸 최해필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과 팀장급 조사관 1명, 장사복 전 전투교육사령부 참모장과 광주에 출동한 무장헬기 부대인 육군 103 항공대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장사복 전 참모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전 103 항공대장은 폐문 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해필 전 사령관과 조사관 1명은 지난 8월 재판을 앞두고 업무 관련성을 이유로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번 재판에는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재판장은 다음 기일(21일 재판) 때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출석한 증인에 대한 신문이 비교적 빨리 마무리되거나 증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재판장이 검찰 구형과 전씨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듣고 재판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씨 재판의 주요 쟁점은 5·18 당시와 이후 광주에서 헬기 사격 실체 여부와 전씨가 자신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조비오 신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는지 등이다.

이에 검찰은 다양한 자료와 여러 진술을 검토·확인, 1980년 광주에서의 헬기 사격이 사실이라고 결론 지었다. 또 회고록 발간 당시까지 헬기 사격에 부합하는 자료가 다수 존재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점에 비춰 전씨에게 범죄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전씨는 재판부의 허가를 받고 그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선고일에는 형사소송법 규정상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8년 5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실내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우선 배정석 20석(기존 38석), 일반 방청석 선착순 15석(기존 65석)으로 방청 규모를 축소해 진행한다. /김영민 기자

청년들로 다시 붐비는 상무지구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광주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고 있는 19일 오후 주말을 맞아 상무지구 주점 밀집지역에서 청년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하고 있다. /김생훈 기자

수사구조 개혁 입법예고 반발

광주·전남경찰 "검찰개혁 취지 못살려"…수정 촉구

광주·전남 경찰이 국회에서 논의중인 수사구조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령의 입법예고에 반발하고 나섰다. 견제와 균형, 검찰개혁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경우회는 지난 18일 수사권 조정 관련 입법예고안 수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우회는 ▲대통령령이 검찰이 속한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된 점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다수의 통제장치를 만들어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형해화한 점 ▲압수수색영장만 받으면 검사의 직접수사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수 있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경우회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경찰관이자, 선진형사사법체제를 염원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입법예고안의 수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경찰내부는 물론 경찰위원회, 민변, 참여연대 등 여러 기관·단체에서 입법예고안 수정을 촉구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냈지만, 공론화 과정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수사구조개혁의 세부내용이 담긴 대통령령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16일 종료,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는 절차만 남았다.

앞서 지난 18일 광주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도성명서를 내고 입법 예고안 수정을 촉구했다.

광주경찰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검찰개혁이라는 당초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입법안에 대한 수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일선 직원들의 여론을 반영하여 민주적 수사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직장협의회의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동구 5년 만에 '인구 10만명' 회복

계림 8구역 2,300세대 입주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종갓집'으로 불리는 동구가 5년 만에 인구 10만명을 회복했다.

20일 동구에 따르면 2,300여세대가 입주 중인 계림8구역 신축아파트에서 이틀 전인 18일에 10만번째 전입신고를 마친 주민을 환영하는 행사가 열렸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동구 인구는 4만 9,112세대, 9만 9,159명으로 집계됐다.

동구는 광주에서 오랜 시간 정치·경제·행정·문화 '1번지'로 불렸으나 신도심과 택지지구 개발 등에 따른 도심 공동화를 겪었다.

1970년대 30만명대였던 인구가 2015년 9월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2017년 12월에는 광주시 전체 인구의 6.5%에 남짓한 9만 5,448명까지 감소했다.

인구 10만명 붕괴는 지방자치단체에 상징적인 의미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10만명 선이 무너진 인구를 2년간 회복하지 못하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조직 축소, 부구청장 직급 하향, 교부세 감소 등 제도적인 불이익이 뒤따랐다. /김종찬 기자

화물차 기사 60여명 운송료 3억원 못받아

화물연대, 물류 업체 대표 경찰 고발

추석을 앞두고 광주 화물차주 60여명이 운송료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 하고 있다.

20일 화물연대 광주지부에 따르면 위니아 대우 광주공장 물류를 운송하는 조합원 38명과 비조합원 20여명이 올해 상반기 한 물류 업체에서 운송료를 받지 못했다.

위니아 대우 물량을 전담한 조합원들은 올해 5월 운송료 1억 8,000여만원 전액을 받지 못했고 상반기에 부정기적으로 투입됐던 비조합원들도 1억 2,000여만원을 떼일 위기에 놓였다고 화물연대 측은 전했다.

화물차 기사들은 공장에서 생산한 세탁기, 냉장고 등 완제품을 운송했다.

그러나 위니아 대우 측이 지난 6월 중순 해당 물류 업체 대표에게 운송료를 모두 지급했음에도 5월분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화물차 기사들은 주장했다.

화물연대 측은 "지난해에는 위니아 대우 관계자가 은행까지 따라가 N 업체가 화물차 기사들에게 체납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며 "그러나 올해는 N 업체가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운송료 체불 우려가 커 위니아 대우 측에 조치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납품 계약 시 담보를 설정하는 등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운송료를 받지 못해 연료 비용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업체가 계속 대금 지급을 외면하면 운행을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화물차 기사들의 입장이다.

화물연대 조합원 38명은 이같은 이유로 해당 업체 대표를 최근 경찰에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의선 화물연대 광주지부 사무부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택배 물량은 늘었지만 백색가전 생산·판매가 줄어 화물차 기사들은 평균 20% 이상 일감이 줄어든 상황이다"며 "피해 구제를 위한 민사·형사적 절차와 단체 행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찬 기자

광주 사립초교 학비 연간 1천만원

교육단체, "입시초기 과열 현상"

광주지역 사립초등학교들의 연간 학비가 1,000만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관내 사립초등학교 3곳(살레시오, 광주삼육, 광주송원)의 예산서를 분석해 공개한 결과 올해 학비(입학금·수업료·수익자부담금 등)는 살레시오초교 1,200여만원, 광주 송원초 1,070여만원, 광주 삼육초 1,020여만원에 달했다.

이러한 액수는 우리나라 평균 대학등록금의 2배에 해당한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처럼 학비가 비싼데도 이들 사립학교 법인은 전체 학교 예산의 1%도 지원하지 않고, 교육청으로부터 무상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다"며 사립학교 법인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어 "특정계층 학부모들의 관심으로 입학경쟁률이 상승하는 등 대학 입시처럼 초기 과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초등학교 간 교육과정 불균형으로 인한 교육격차가 심화하지 않고 국공립 초교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 당국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철 기자

수익 상가 [상무지구]

상무지구 중심 유흥지구 (메가박스 앞)

▣ 6층-80평, 7층 -60평 (합 : 140평) (룸완비)
▣ (빠,유흥노래방,마사지, 사무실.모든가능투자적합)

-즉시입주가, 시설비없음, (임대가능)

★ 감정가 (시세) → 10억 5천
급 매 가 → 4억 5천

1) 용봉동 원룸 매매 (용봉IC 3분)
▶【룸15개, 주택1】 리모델링 완료
▶ 매매 6억9천만원 (보8천 월440 융2억)

2) 광산구 수완동 원투룸13개, 옥탑2개 주인1채(방3화2)
▶ 리모델링,내부깨끗함,최고위치
▶ 매가 9억6천 (보1억,월세460.융6억3천)

3) 임대 6층 (상무지구)80평 임대 보2천 월150만
▶ 즉시입주가능, 시비없음, 빠, 룸, 유흥가능

4) 임대7층 상무지구60평 임대 보2천.월80만
▶ 즉시입주가능,시비없습,유흥,빠,룸가능)

5) 충남 당진 신축원룸 매매 10년간 임대걱정없음
▶ 원투룸 18개 (보 5천 월 890만) -매가10억5천

6) 충남예산 4층건물, 룸13개 월450-매가8억5

장성토지 [급매]

광주에서 20분 (도로접)-분양
(주택.주말농장,농막가능,텃밭가능)

1) 토지 50평 (농막가능) → 4,000만원
2) 토지 (대지) 100평(주택1채)→ 8,000만
3) 토지 200평(농막6평포함)-1억,4000만
4) 토지 1000평, 3000평-가능

(전원주택가능,창고 물류,사무실,투자적합)

■추천물건

1) 장성읍 용강리 (토지760평)-8천5백
2) 장성 야은리 토지50평-4천--농막,주말농장가능
3) 장성 야은리 100평도로접함-7천-주택가능,
4) 야은리 토지 200평-1억4천
5) 장성 야은리 임야 2500평-11억2천
6) 장성읍 덕진리 1300평-1억6천
7) 장성땜가는길 국도40미터접함1000평- 6억
8) 장성 야은리 300평 도로접-2억1천

■추천물건

9) 장성 상오리주택가능 약120평-평당-70만
10) 장성 신흥리 공장건물,토지1000평-매가6억
11) 장성 황룡리 2천평도로접,계획관리-8억
12) 장성 황룡리 3천평--12억
13) 담양읍 금성면 (1470평) -8억
14) 장성 삼서금산리3000평,계획관리 -8억
15) 서구 서창주택가능 270 주거지역 -6억
16) 장성 북일면 3200평 계획관리 -14억

경매교육 기초반 특수반

❶ 기초반, 실전 (기초이론, 실전)
❷ 중급반, 실전 (중급이론, 실전)
❸ 고급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엔피엘전문)
❹ 전문반 모집 (직업가능, 수익가능)

·전문반무료제공- 책상, 컴퓨터 제공,매주1회물건스터디

1) 군산 토지1240평,건물1200평→감정가-48억-최저가16억
2) 충주 수안보 4층건물 토지143평,건물552평 감정가12억8천→최저가2억7천
3) 경기 양평 주택토지 토지1970평,건물2채148평--감정가21억→최저가7억2천
4) 논산 아파트 21개 감정가28억→최저가9억3천

★경매 물건추천 광주 전남★

1) 북구 임동 (숙박시설) ▶ 감정가 6억6천→최저가 4억6천
2) 남구 월산동 건물 ▶ 감정가 6억6천→최저가 4억6천
3) 영광공장토지700평,건물430평 ▶ 감정가 12억→최저가 4억
4) 완도 모텔,바다가, ▶ 감정가 18억→최저가 10억
5) 해남 무인텔,대흥사가는길 ▶ 감정가 12억→최저가 2억8천
6) 함평 요양병원3층 ▶ 감정가 40억→최저가 9억2천
7) 서구 농성동 (주유소) ▶ 감정가 25억9천→최저가 25억9천
8) 북구 용봉동(고시원4층) ▶ 감정가 13억→최저가 7억3천
9) 남구 월산동 (다가구원룸) ▶ 감정가 5억→최저가 3억4천6백

010-6670-9800 062-382-5500